

유아의 내적 · 외적 변인이 자기규제 발달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Children's Internal and External Variables on Self-Regulation

구미1대학 유아교육과
부교수 김 미 해
조교수 윤 호 열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Kumi 1 College

Asso. Prof. : Kim, Mee-Hae

Assistant Prof. : Yoon, Ho-Yeol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논의 및 결론 |
| 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III. 연구결과 및 해석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children's internal (age, sex, self-respect) and external (maternal belief, childrearing behavior) variables on self-regulation. The subjects were 200 4-and-5-year-olds, their mothers, and teachers. Children's age, sex, and self-respect had an influence on self-regulation; that is 5-year-olds were higher than 4-year-olds for behavioral self-regulation, girls were higher than boys for cognitive and behavioral self-regulation, and the high self-respect group was higher than the low self-respect group for cognitive self-regulation. The psychological controlling and externally directed strategies had a negative influence on children's self-regulation. Maternal affectionate childrearing behavior had an influence on children's self-regulation; that is the high affectionate group had children with higher self-regulation.

주제어(Key Words): 자기규제(self-regulation), 어머니 신념(maternal belief), 양육행동(childrearing behavior)

I. 서론

유아가 바람직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능력의 하나인 자기규제(self-regulation)는 자기통제(self-control), 자기조절(self-management)과 같은 용어로 사용되어 왔는데(Mischel & Mischel, 1983), 이에 관한 연구는 자아이론가들로부터 시작되었으나 체계적인 연구는 1960년대 이후부터 이루어졌다(Rose, 1991). 자아이론이나 정신분석학적 입장에서는 자기규제를 비교적 개인의 자율성이 없는 부모에 의해 내재화된 심리 내적 특성으로 간주하여, 아동의 인지적, 능동적 측면을 무시하였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자 시도한 최근 연구들은 자기규제를 단순히 개인이 지닌 성격특성이거나 환경에 의한 반응적 행동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외적 상황과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고 자기규제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Harter, 1983).

이와 같이 상황적 특성을 강조하는 최근 연구들에서는 자기규제를 상황에 따라 적합한 행동을 하게하며, 미래의 더 좋은 결과를 위해 일시적인 충동이나 즉각적인 만족을 제지하고 인내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있다(이경님, 2000; 김정원, 2002; Lerner, 1986). 따라서 자기규제란 유아가 특정 상황에서 바람직한 목표를 위해 또는 사회나 부모의 요구, 기준에 맞게 스스로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자기규제 능력은 영유아기 이후의 인성 및 사회성 발달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자기규제는 어린 유아부터 청소년기에 이르기 까지 도덕관련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예: Kochanska, Murray & Coy, 1997), 학령기 아동의 학문적 성취와 심리 사회적 능력과 관련되어 있으며(예: Brody, Flor & Dibson, 1999), 내면적, 외현적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친다(예: 이경님, 2001; 2003; Eisenberg, Guthrie, Fabes, Shepard, Losoya, Murphy, Jones, Doulin & Reiser, 2000; Eisenberg, Cumberland, Spinrad, Fabes, Shepard, Reiser, Murphy, Losoya & Guthrie, 2001).

그런데 과거와 비교하여 현대 아동들이 보이는

특성을 단적으로 설명하자면 꾸준한 인지능력의 향상에 비해 사회적 능력은 상당히 부족하다고 하겠다. Zimiles(1986, 이기숙, 2000에서 재인용)는 현대의 아동들은 자기를 주장하는 능력은 뛰어나지만 상대방의 이야기를 거의 듣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예전보다 자기 통제력이 약화되고 규율이 없다고 하였다. 최근 정보화 사회에 들어서면서 나 아닌 다른 사람과 어떻게 조화롭게 살아내는가는 예전보다 더욱 어려운 과제가 되고 있다. 최근 아동발달 영역에서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인가를 고려하여 본인의 욕구나 충동을 적절히 조절하여 사회적 상황에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인 자기규제(Kopp, 1982)에 대해서 관심이 증가되고 있는 것은 시대적 요구에 대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교육부에서도 이미 이러한 추세를 유치원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예절, 질서, 감정과 욕구의 절제를 유아가 습득하여야 할 기본생활습관과 개인의 행동 조절에 포함시켰다. 즉 기본생활습관을 기르고,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조절하여 남과 더불어 사는 방법을 익히며, 사회 현상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의 중요성을 보다 강조하고 있다. 이는 자기규제를 생활습관에서 나타나는 행동이기보다는 개인이 갖추고 있는 사회적 능력으로 이해하여 아동의 자율성과 책임성의 발달과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데 필요하다는 인식의 변화에 기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교육부, 1998).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유아의 자기규제 발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변인들은 유아의 연령이나, 성, 성별이나 자아존중감과 같은 유아의 내적 변인과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같은 외적 변인으로 나뉘어질 수 있다(곽혜경, 조복희, 1999; 이경님, 2001; Goleman, 1995; Kochanska & Aksan, 1995). 유아의 자기규제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점진적으로 발달된다는 점은 여러 선행연구들에서 지적되고 있다. 자기규제는 출생 후 즉시 나타나서, 기질과 같은 유아의 내적 특성과 유아를 둘러싸고 있는 주위환경의 영향을 받아 성인과 사회의 제재인 타율성 단계에서 상호존중에 기초한 공정성과 호혜성에 근거하

는 자율성 단계로 점진적으로 발달한다(조성민, 이순형, 1998; 김정원, 2002). 즉 유아들은 사회화 과정에서 부모 등의 성인과 상호작용하면서 기존 사회에는 적절한 행동의 기준이 있음을 인식하기 시작하고, 이러한 인식이 가능하게 되면 특정 행동의 기준에 맞게 행동할 것을 요구하는 성인의 요구에 순응하게 되면, 결국에는 다양한 기준들이 내면화되는 과정을 거쳐 자신의 행동을 사회적 규범에 맞도록 적절하게 규제할 수 있게 된다. 일반적으로 생후 18개월 정도에 순종적인 유형의 자기규제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만 35세에 걸쳐 보다 진보된 형태의 자기규제가 가능하게 된다(Kaler & Kopp, 1990, 김정원, 2002 재인용: Olenick, 1984; Vaughn, Kopp & Krakow, 1984). 즉 타율적인 자기규제에서 자율적인 자기규제에로 점진적으로 발달하는데, 이러한 발달과정에서 유아는 사회적 규칙을 동일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질적으로 다른 영역으로 구분하여 능동적으로 자기규제력을 이용하는 정도와 동기를 조절한다(Turiel, 1983).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아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자기규제가 보다 진보된 형태로 발달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연령별 자기규제의 발달적 특성을 살펴보는데 그 목적을 두지 않고, 연령에 따라 자기규제의 발달에 양적 증가 정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Kendall과 Wilcox(1979)는 자기규제를 충동통제력, 행동적 통제력, 인지적 통제력의 세 부분으로 구분하였는데, 충동통제력은 충동적이지 않고 신중하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능력이며, 행동적 통제력은 바람직한 행동에 참여하고 그렇지 않은 행동은 억제하는 능력과 금지된 행동이나 상황에 부적절한 행동은 의도적으로 억제하는 행동이 포함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인지적 통제 능력은 문제해결을 잘 하고 계획 및 종합, 평가하는 능력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충동통제력은 충동적이지 않고 신중하게 판단하여 행동하는 능력으므로, 이를 행동적 통제력에 포함시켜 보는 입장도 있다. 즉 바람직한 과업을 위해 일시적인 즐거움을 가져다주는 대상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능력인 유혹저항(강기숙, 이경님, 2001)과 특정

사태에서 유아가 즉각적인 욕구충족을 지연하여 보다 큰 만족을 얻고자 하는 만족지연능력(송명자, 1995; Vaughn et al, 1984; Mischel & Mischel, 1983), 그리고 성급한 감정, 정서, 행동, 판단, 선택 등을 자제하고 통제하는 능력인 충동억제력, 이 세 가지를 행동을 수행할 때 나타나는 자기규제의 하위요인으로 보고 있다(송명자, 1995).

따라서 유아의 자기규제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상황을 검토하고 숙고할 수 있는 인지적 능력과 더불어 인지과정을 통해 선택된 행동을 수행하는데 나타나는 유혹저항(resistance to temptation), 만족지연(delay of gratification), 충동억제(inhibition of impulse)와 같은 행동적 영역을 함께 고려할 때 보다 통합적인 자기규제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송명자, 1995; Harter, 1983).

한편 자기규제의 성차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일관성 없는 결과들을 보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혹저항 행동에는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고(곽혜경, 1998), 만족지연 행동에서도 남아와 여아간 차이가 없다고 보고되고 있다(허수경, 이경님, 1996). 그러나 여아가 남아보다 자기통제가 높다는 연구(이경님, 2001; Kendall & Wilcox, 1979; Kochanska, Cox & Murray, 2001)도 있어 성차에 관한 연구결과에는 일관성이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연구들이 자기 자기규제의 다른 하위영역들을 다루고 있어 인지적, 행동적 측면을 통합한 자기규제에서의 성차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연령과 성 이외의 개인적 변인으로 유아의 자기규제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자아존중감이다. 즉, 유아의 자신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자긍감(self-pride) 혹은 스스로의 보상(self-reward)이 되어 행동통제에 영향을 미친다(Harter, 1983; 1998). 자기규제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능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쳐 환경이 요구하는 대로 자신의 행동을 적절히 조절·통제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자기규제와 자아개념간의 관계는 욕구만족지연, 충동억제에 유의한 설명력을 가지고(Flynn, 1984), 자기규제와 자아존중감 간에 발달적 관계가 있으며(Lewenstein,

1983), 사회적 자아개념과 자기규제 간에 관계가 있음(이경남, 2001)을 밝힌 연구들을 통해 일관성있게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유아기는 자아개념을 형성하기 위해 주변의 의미있는 사람들로 부터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자신의 관찰 가능한 특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묘사할 수는 있으나, 아직 그 평가가 비현실적이고 지나치게 긍정적인 시기이므로(Harter, 1998), 이 시기에도 자신에 대한 자긍감이 자기규제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아의 자기규제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 요인으로 부모 양육행동이 가장 빈번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변인이다. 유아에게 주어지는 타인의 요구나 기대는 자기규제 형성에 매우 중요한데, 이 과정에서 일차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상이 부모이기 때문이다. 특히 자녀의 초기 사회화 과정을 거의 전담하는 사회화 대행자로서의 부모가 강조하는 사회적 목적에 따라 자기규제는 차이를 보인다고 한다(Kopp, 1982; Kochanska et al., 2001).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크게 애정적인 양육행동과 엄격하고 통제적인 양육행동으로 나누어 자기규제와의 관계가 연구되어 왔다.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충동통제와 자기규제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는데, 온정적이고 애정적인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독립심을 지지하고 격려하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자녀가 충동과 욕구를 통제하고 환경적 요구에 적합하게 행동을 조절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안미경, 1996; 이경남, 2001; 이수연, 1985; Olsen, Bates, & Bayles, 1990, 이경남, 2001에서 재인용; Wentzel, Feldman, & Weinberger, 1991).

그러나 자기규제와 어머니의 양육행동간 관계를 다룬 선행연구들은 양육행동에 관한 부모의 사고변인을 포함하지 않았다. 최근에는 어머니의 양육행동만이 아니라 주변의 사건을 해석하고, 그 해석에 근거하여 자신의 정서와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존재로서 부모를 인식해야 함이 강조됨(구순주, 최보가, 1996; Bell, 1979; Dix & Grusec, 1983; Siegel, 1985)에 따라 부모의 양육신념이 유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부모

의 양육 신념을 다룬 연구들은 자녀의 문제행동에 대한 부모들의 귀인, 정서적 반응, 그 행동을 다루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 그리고 일반적인 양육목적을 다루고, 이 신념에서의 차이를 가져오게 하는 일부 변인들을 산발적으로 다루고 있다(예; 구순주, 최보가, 1996; Pettit et al., 1988; Rubin & Mills, 1990; Hasting & Rubin, 1999; Harwood, Schoelmerich, Schulze & Gonzalez, 1999; 김미혜, 옥경희, 천희영, 2003). 유아의 긍정적인 행동에 관한 부모의 신념을 다룬 연구는 거의 없고, 특히 집단 속의 개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중요한 능력인 자기규제를 부모의 양육신념과 연결시킨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다만 자기의 욕구를 절제하고 집단생활에서의 규칙을 준수하는 자기규제가 양육신념은 아니나 부모의 공동체 의식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를 살펴본 김현신(1999)의 연구가 그나마 부모의 가치체계를 다루고 있다. Smaroff(1975)는 아동발달에 관련된 부모의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양육태도나 행동 같은 표면적인 특징보다는 양육시 드러나는 태도나 행동의 기저에 깔려있는 신념이나 사고의 수준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양육행동을 이끌며 자녀의 제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모의 신념과 폭넓은 사회적 능력의 발달에 기여하는 자기규제의 발달 간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어린 시기부터 적절하게 발달되어야 할 중요한 발달과업인 자기규제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연령, 성, 자아존중감의 유아 내적 변인과 어머니의 양육신념 및 양육행동의 외적 변인으로 나누어 각 변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봄으로써, 유아의 자기규제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이상의 연구목적을 위해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자기규제는 내적 변인인 연령, 성, 자아존중감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둘째, 유아의 자기규제는 외적 변인인 어머니의 양육신념과 양육행동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셋째, 유아의 자기규제에 영향을 미치는 내적 변

인과 외적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기규제 .88, 행동적 자기규제 .90으로 나타났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구미시의 4개 유치원에 취원하고 있는 만 4세 유아 198명(평균연령 : 4세 5개월, 남 103명, 여 95명)과 만 5세 유아 202명(평균연령: 5세 7개월, 남 114명, 여 88명), 총 400명과 그들의 주양육자인 어머니들 및 유아들의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 연령을 만 4, 5세로 선택한 이유는 자기규제의 발달이 2, 3세경에 시작되어 4, 5세에 그 학습이 최적기라는 선행연구(Kopp, 1982)의 지적에 따라 유아의 자기규제를 증진시키기에 적합한 시기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대상의 가정 환경적 변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구에 참여한 유아의 어머니의 평균연령은 33세 이었고,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중퇴자를 포함한 중졸 이하가 74.6%, 고졸 25.1%, 전문대 졸업 이상이 0.3%이었으며, 전업주부가 73.3%이었다. 또한 가정의 경제수준은 다음과 같다. 150만원 미만의 수입을 가진 가정이 20.5%, 150만원에서 300만원 미만의 수입을 가진 가정이 58.7%, 그리고 300만원 이상의 수입을 가진 가정이 20.8%이었다.

2. 연구도구

1) 유아의 자기규제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자기규제를 측정하기 위해 만 5, 6세 유아를 대상으로 사용된 이경님(2000)의 자기통제척도와 Humphrey(1982)의 척도들을 본 연구의 대상연령에 적합한 상황들로 질문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자기규제를 측정하는 척도는 인지적 자기규제에 관한 문항 5개, 행동적 자기규제에 관한 문항 5개로 총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척도로 유아의 담임교사가 평정하도록 하였다. 자기규제 문항의 신뢰도는 인지적 자

2) 유아의 자아존중감

유아의 자신에 대한 평가는 자긍감,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쳐 자신의 행동을 조절·통제하도록 한다(Harter, 1989; 199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Harter(1982)에 의해 고안된 자기능력지각 척도(The Perceived Competence Scale for Children)를 최혜영(1990)과 이은혜 등(1992)이 타당화를 입증한 아동의 사회적 능력성 척도-유치원용 및 초등학교 1, 2학년용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사회적 능력성을 측정하는 것이나 유아가 자신의 능력을 스스로 평가하는 것이므로, 자신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정도를 살펴보는 데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Harter, 1998). 개별적으로 유아에게 척도의 그림자료를 제시하고 각 문항에서 대해 자신이 생각하기에 '매우잘한다(4)'에서 '매우 잘하지 못한다(1)'까지 4점 척도로 평가하였다.

3) 어머니의 양육신념

어머니의 양육신념을 측정하기 위해 자기규제에 관한 선행연구들(강기숙, 이경님, 2001; 허수경, 이경님, 1996; Eigenberg et al., 2000; 2001; Kochanska et al., 1997; 2001)에서 사용된 연구 상황을 참조하여 자기규제에 관한 2가지 가설적인 이야기를 작성하였다. 각 이야기는 만지지 못하도록 금지된 매력적인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상황과 기다리면 케익과 과자를 함께 먹을 수 있는데, 기다리지 못하여 과자만 먹게 되는 상황이 묘사되었다. 각 이야기는 양육신념에 관한 선행연구들(구순주, 최보가, 1996; 김미혜 등, 2003; Harwood et al., 1999; Hasting & Rubin, 1999; Mills & Rubin, 1990; 1992)에서 사용된 방법론을 참조하여 어머니들에게 제시한 후, 만약 자신의 자녀가 이야기 속의 인물이라면 그 행동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5개의 귀인), 그 행동을 보고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9개의 정서적 반응), 그리고 그 행동을 다루기 위해 어떤 전략을 사용할 것인지(6개의 사회적 전략)를 5점 평정척도로 평정하게 하였다. 자기규제에 관한 어머니 신념의 하위

요인별 내용과 신뢰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표 1>과 같다.

어머니의 양육신념의 하위특성 중 귀인과 정서적 반응의 해당 요인의 수가 너무 많아 연구목적에 맞추어 요인의 수를 줄이기 위하여 varimax rotation을 사용하여 최소 eigenvalue를 1.0으로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요인 분석의 결과와 선행연구들(Hasting 등, 1999; 김미해 등, 2003)을 기초로 하여, 귀인은 성향, 연령 및 습득된 습관, 그리고 일시적·외적 요인의 세 요인으로 구분하였고, 정서적 반응은 부정적 정서(분노, 실망, 당황, 죄책감), 혼란(어리둥절, 혼란)과 걱정으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어머니가 사용하는 사회적 전략은 그대로 사용하였다.

4) 어머니의 양육행동

본 연구에서는 천희영(1994)의 연구를 기초로 애정성과 통제성의 두 차원으로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조사하였다. 각 차원별 5문항씩 총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항상 그렇다' (5점)까지의 5점 척도에 반응하도록 구성되었다. 애정차원의 양육행동은 .75, 통제차원의 양육행동은 .71의 신뢰도를 보였다.

3. 연구절차 및 자료 분석방법

본 조사를 위한 자료수집에 들어가기에 앞서 설문지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점검하기 위하여 36명의 5세 유아(남아 24명, 여아 12명)와 그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의 결과에 근거하여 설문지 문항에 대한 검토 후 본 조사 자료 수집을 실시하였다.

본 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통계분석 절차를 통하여 분석되었다. 먼저, 연구대상자들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 1, 즉 유아의 내적 변인에 따라 자기규제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ANOVA를 실시하였다. 연구문제 2, 즉 어머니의 신념과 양육행동에 따라 자기규제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귀인 및 정서적 반응의 수정된 요인과 사회화 전략, 그리고 애정적·통제적 양육행동에서 평균에서 표준편차를 더한 집단을 '상' 집단, 평균에서 표준편차를 뺀 집단을 '하' 집단으로 나누어 유아의 자기규제에 차이가 있는지 ANOVA를 실시하였다. 연구문제 3에서 유아의 내적·외적 변인이 자기규제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해석

1. 유아의 내적 변인에 따른 자기규제

유아의 내적 변인, 즉 연령, 성, 자아존중감에 따른 자기규제에서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먼저 5점 척도로 측정된 자아존중감의 점수를 평균에서 표준

<표 1> 어머니 신념의 하위요인별 범주 및 내용과 신뢰도

신념의 하위요인	범주 및 내용	신뢰도
귀 인	성향, 습득된 습관, 나이, 일시적 상태, 외적 상황적 요인	.50 ~ .73
감 정	분노, 당황, 즐거움, 실망, 걱정, 만족, 놀라움, 혼란, 죄책감	.56 ~ .85
사회적 전략	① 세력행사(power assertive) 전략: 처벌, 명령	.87
	② 심리적 통제(psychological controlling) 전략: 위협, 비난	.91
	③ 구성하기(structuring) 전략: 추론, 모델링, 대안제시	.83
	④ 지지적(supportive) 전략: 유아에게 정보요청, 위로, 유아 활동에 합류	.86
	⑤ 외적 지향(externally directed) 전략: 감독(monitoring), 교사에게 정보 요청	.75
	⑥ 무반응(no response):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는 다고 응답	.87

편차를 더한 집단을 자아존중감이 높은 '상' 집단으로, 평균에서 표준편차를 뺀 집단을 자아존중감이 낮은 '하'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각 변인에 따른 인지적 자기규제와 행동적 자기규제에서의 차이를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에 의하면 유아의 연령은 행동적 자기규제에서만 차이를 가져왔는데, 4세아보다 5세아의 행동적 자기규제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성은 인지적, 행동적 자기규제 모두에 차이를 가져왔는데, 남아보다는 여아가 인지적으로나 행동적으로 자기규제를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유아의 자아존중감은 인지적 자기규제에서 차이를 보였다. 즉 자아존중감이 높은 유아가 인지적 자기규제를 더 잘 하였으나, 행동적 자기규제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2. 유아의 외적 변인에 따른 자기규제

어머니의 자기규제에 대한 신념과 양육행동에 따라 유아의 자기규제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귀인 및 정서적 반응의 수정된 요인과 사회화 전략 그리고 애정성 및 통제성의 양육행동에서 평균에 표준편차를 더한 집단(상)과 평균에서 표준편차를 뺀 집단(하)으로 나누어 각 변인에 따라 유아의 자기규제에 차이가 있는지 ANOVA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전략 중 '무반응'은 평균점수가 너무 낮아 '상', '하' 집단으로 구분되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어머니의 신념 중 유아의 자기규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어머니가 사용하는 심리통제와 외적지향 전략 뿐이었다. 즉 자녀가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위협이나 비난과 같은 심리적 통제 전략을 더 적게 사용하는 어머니들의 자녀가 좀 더 행동적 자기규제를 잘 하였고, 감독하고 교사나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외적 지향 전략을 적게 사용하는 어머니들의 자녀가 인지적 자기규제를 더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양육행동에서는 애정적 양육행동만이 유아의 인지적 자기규제에 유의있는 차이를 가져왔다. 즉 애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 집단이 덜 애정적인 집단의 자녀들보다 인지적인 자기규제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유아의 자기규제를 예측하는 내적·외적 변인

유아의 연령, 성, 자아존중감과 같은 내적 변인 중 명명변인인 연령과 성을 제외하고 자아존중감과 어머니의 양육신념과 양육행동과 같은 외적 변인이 자기규제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각 변인들간 상관관계 분석의 결과를 <표 4>에, 그리고 회귀분석의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의 결과에 의하면 유아의 인지적 자기규제에는 어머니의 애정적인 양육행동만이 영향을 미쳤다. 즉 어머니가 자녀를 애정적으로 양육할 때 인지적으로 자기규제를 좀 더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영향력은 미약하였다. 한편 유아의 행동적 자기규제에는 어머니의 신념 중 심리적 통제전략과

<표 2> 유아의 연령, 성, 자아존중감에 따른 자기규제

		N	인지적 자기규제			N	행동적 자기규제		
			M	SD	F		M	SD	F
연령	4세	195	3.19	.75	.09	196	3.95	.78	20.04**
	5세	199	3.17	.82		204	4.28	.69	
성	남	213	3.08	.79	7.56**	216	4.04	.78	6.16*
	여	181	3.30	.76		182	4.22	.71	
자아존중감	상	75	3.35	.68	6.62*	75	4.21	.58	.15
	하	54	3.01	.79		54	4.17	.67	

* p<.05, ** p<.01

〈표 3〉 유아의 외적 변인에 따른 자기규제

			N	인지적 자기규제			N	행동적 자기규제		
				M	SD	F		M	SD	F
귀 인	성 향	상	68	3.18	.81	.13	68	4.11	.77	.09
		하	85	3.23	.82		87	4.15	.75	
	연령 및 습 관	상	124	3.12	.82	.93	127	4.15	.71	1.49
		하	76	3.23	.77		76	4.02	.74	
	일 시 적 요 인	상	38	3.11	.82	.48	38	4.12	.77	1.29
		하	70	3.30	.76		71	4.27	.64	
정 서 적 반 응	부 정 적 정 서	상	72	3.19	.79	.02	71	4.14	.72	.04
		하	59	3.21	.85		59	4.16	.72	
	혼 란	상	61	3.27	.73	.41	64	4.17	.74	.05
		하	116	3.19	.82		106	4.14	.73	
	격 정	상	61	3.27	.78	.03	62	4.17	.80	.16
		하	79	3.30	.84		80	4.22	.67	
사 회 화 략 전	세 력 행 사	상	63	3.17	.83	.37	63	4.01	.80	2.62
		하	112	3.25	.76		112	4.19	.70	
	심 리 통 제	상	82	3.05	.81	1.87	83	3.97	.83	4.13*
		하	115	3.21	.80		116	4.19	.67	
	구 성 하 기	상	61	3.18	.84	.19	63	4.04	.82	1.21
		하	59	3.24	.76		60	4.24	.71	
지 지 적	상	57	3.23	.88	.00	58	4.10	.69	.88	
	하	68	3.22	.75		69	4.22	.74		
외 적 지 향	상	55	3.00	.83	4.52*	54	4.20	.56	.38	
	하	168	3.26	.76		168	4.14	.73		
양 육 행 동	통 제 적	상	64	3.08	.85	1.97	64	3.99	.80	2.37
		하	43	3.30	.76		44	4.21	.63	
	애 정 적	상	52	3.36	.85	6.64**	53	4.19	.70	2.06
		하	52	2.95	.76		52	3.96	.91	

* p<.05, ** p<.01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머니가 자녀의 행동에 위협이나 비난과 같은 심리적 통제를 덜할수록, 그리고 어머니의 일반적인 양육행동이 애정적일수록, 유아는 행동적 자기규제를 더 잘 하였다. 그러나 각 변인의 설명력은 매우 적었다.

각 연령별, 성별로 유아의 자기규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 각 연령별, 성별로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 인지적 행동규제에서 남아의 경우에는 어머니의 애정적인 양육행동이 영향을

미쳤고, 4세 유아의 경우는 통제적인 양육행동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행동적 자기규제에서는 여아의 경우에는 어머니의 애정적인 양육행동이 영향을 미쳤고, 5세아의 경우에는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전략이, 4세아의 경우에는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이 영향을 미쳤다. 즉 남아는 어머니가 애정적인 양육행동을 많이 할수록 인지적인 자기규제를 조금 더 잘 하였고, 여아는 어머니가 애정적인 양육행동을 많이 할수록 행동적인 자기규제를 잘 하였다. 연령에 따라서는 5세아는 어머니가 심리적 통제전략을 덜 사용할수록 행동적으로 자기규제

〈표 4〉 유아의 내적·외적 변인과 자기규제간의 상관관계

		규 제		귀 인			정서적 반응			사회화 전략					양육행동		자 아	
		인지	행동	성향	연령	일시	부정	혼란	걱정	세력	심리	구성	지지	외부	무반응	애정		통제
규 제	인지	1.00																
	행동	.31**	1.00															
귀 인	성향	-.05	-.06	1.00														
	연령	-.06	-.01	.20**	1.00													
	일시	-.06	-.07	.17**	.42**	1.00												
정서적 반응	부정	-.04	-.05	.18**	.36**	.24**	1.00											
	혼란	-.02	-.03	.20**	.38**	.24**	.75**	1.00										
	걱정	-.04	-.06	.16**	.21**	.14**	.52**	.48**	1.00									
사회화 전략	세력	-.01	-.09	.23**	.34**	.31**	.67**	.56**	.36**	1.00								
	심리	-.04	-.10*	.28**	.34**	.24**	.61**	.51**	.31**	.77**	1.00							
	구성	.02	-.02	.21**	.31**	.30**	.41**	.42**	.27**	.47**	.35**	1.00						
	지지	.04	-.06	.14**	.27**	.27**	.44**	.43**	.21**	.50**	.39**	.68**	1.00					
	외부	-.08	-.02	.14**	.29**	.27**	.44**	.46**	.22**	.38**	.33**	.28**	.32**	1.00				
양 육 행 동	애정	.12*	.15**	.02	.02	-.02	-.04	.03	.05	-.02	-.12*	.12*	.07	-.04	-.11	1.00		
	통제	-.12*	.01	.05	.04	-.01	.05	.02	.08	.12*	.13*	.03	.07	.02	.00	-.14**	1.00	
자 아		.00	.03	.04	.04	.04	-.01	.03	.08	-.01	.02	.02	.01	.02	.04	.03*	.02	1.00

* p<.05, ** p<.01

〈표 5〉 유아의 내적·외적 변인이 자기규제에 미치는 영향

	예측변인	R	R ²	F	B	β
인지적 자기규제	애정적양육행동	.134	.018	6.226*	2.402	.079
행동적 자기규제	심리적 통제	.142	.020	7.051**	-.104	-.142
	애정적양육행동	.182	.035	6.153**	.173	.121

* p<.05, ** p<.01,

〈표 6〉 유아의 연령, 성에 따라 각 변인들이 자기규제에 미치는 영향

		예측변인	R	R ²	F	B	β
인 지 적 자 기 규 제	남	애정적양육행동	.182	.033	6.315*	.249	.099
	4세	통제적양육행동	.153	.023	4.053*	-.222	-.153
행 동 적 자 기 규 제	여	애정적양육행동	.218	.048	7.73**	.330	.119
	4세	통제적양육행동	.165	.027	4.755*	-.227	-.165
	5세	심리적통제전략	.165	.027	4.845*	-.110	-.165

* p<.05, ** p<.01

를 조금 더 잘 하였고, 4세 유아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덜 통제적일수록 인지적으로나 행동적으로 자기규제를 더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유아의 자기규제를 인지적 자기규제와 행동적 자기규제로 나누어, 자기규제의 발달에 유아

의 연령, 성, 자아존중감과 같은 내적 변인과 어머니의 양육신념 및 양육행동과 같은 외적 변인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결과를 중심으로 연구문제별로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연령, 성, 자아존중감에 따라 자기규제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유아의 연령은 행동적 자기규제에서만, 유아의 성은 인지적·행동적 자기규제 모두에서 차이가 있었으며, 자아존중감은 인지적 자기규제에서만 차이를 가져왔다. 즉, 4세 아보다는 5세아가 행동적인 자기규제를 좀 더 잘하였고, 남아보다는 여아가 인지적 자기규제와 행동적 자기규제를 모두 더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동적 자기규제에서 나타난 연령차는 선행연구들(김정원, 2002; 이경님, 2001; 조성민과 이순형, 1998; Kochanska et al., 2001; Kopp, 1990)과 일치한다. 또한 인지적 자기규제에서 연령차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Maccoby(1980, 송명자, 1995 재인용)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인지적 측면에서의 자기규제는 다른 충동억제능력에 비해 늦은 시기에 나타나므로, 본 연구의 대상처럼 어린 시기에는 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을 수 있다. 한편 성차에 관한 본 연구의 결과는 여아가 남아보다 자기규제를 잘 한다는 연구결과들(이경님, 2001; Kendall & Wilcox, 1979; Kochanska et al., 2001)과는 일치하였으나, 성차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고한 연구결과들(곽혜경, 1998; 허수경과 이경님, 1996)과는 일치하지 않았다. 이는 선행연구들이 다루고 있는 자기규제의 하위영역들이 서로 다르고, 연구방법상에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일부 해석될 수 있다. 성차에 관해서는 자기규제의 하위영역들을 보다 포괄적으로 포함한 연구들이 더 축적되어야 할 것이다. 유아의 자아존중감에 따라 인지적 자기규제에서는 차이가 있었으나 행동적 자기규제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일관성있게 자아개념과 자기규제간의 긍정적인 관계를 지지하는 선행연구들(이경님, 2001; Flynn, 1984; Harter, 1983; 1998; Lewenstein, 1983)과는 부분적으로만 일치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이 아직 자신을 현실적으로 평가

하기 어려운 시기에 있어서 그 영향력이 크지 않을 수 있으나, 자아개념이 형성되는 시기인 유아기에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갖도록 도와주는 것이 자기규제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한 방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만으로는 미흡하므로 자아존중감과 자기규제간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밝히고자 하는 보다 많은 추후연구들이 축적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은 어머니의 신념에 따라 유아의 자기규제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자녀가 자신을 잘 통제하지 못할 때 어머니가 위협이나 비난과 같은 심리적 통제전략을 덜 사용할수록 자녀가 행동적 자기규제를 더 잘 하였고, 자녀를 감독하거나 교사나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외적지향전략을 더 적게 사용할수록 인지적 자기규제를 더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규제에 관한 어머니의 신념을 다룬 연구가 없어 직접 비교할 수는 없으나, 어머니가 사용하는 전략이 자기규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자기규제 발달에 중요한 시기인 유아기 동안 자기규제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하나의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위협이나 비난과 같은 통제전략은 유아의 행동적 자기규제력을 저하시키고, 무조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외적지향의 전략은 자녀의 인지적 규제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이 분야에 관한 연구가 미흡하므로, 보다 많은 연구들이 축적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따라 유아의 자기규제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애정적 양육행동이 유아의 인지적 자기규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가 애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수록 자녀는 인지적으로 자기규제를 더 잘 하였으나 행동적 자기규제에는 차이가 없었으므로, 이 결과는 선행연구들(안미경, 1996; 이경님, 2001; 이수연, 1985)과 부분적으로만 일치하였다.

그러나 통제적 양육행동에서는 차이가 발견되지 않아 통제적이고 거부적인 양육행동이 자기규제와 부적 관계가 있다고 한 선행연구들(안미경, 1996; 이경님, 2001)의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유아의 자기규제에 각 변인들이 미치

는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인지적 측면에서는 어머니가 자녀를 애정적으로 양육할수록 유아들은 조금 더 자기규제를 잘 하였고, 행동적 측면에서는 어머니가 심리적 통제전략을 덜 사용하고, 애정적으로 양육할수록 더 자기규제를 잘 하였다. 또한 각 연령별, 성별로 제 변인들이 유아의 자기규제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났다. 즉 남아의 경우에는 어머니가 애정적인 양육행동을 많이 할수록 인지적인 자기규제를 잘 하였고, 여아의 경우에는 어머니가 애정적인 양육행동을 많이 할수록 행동적인 자기규제를 잘 하였다. 5세아들은 어머니가 심리적 통제전략을 덜 사용할수록 행동적인 자기규제를 조금 더 잘 하였는데, 4세아들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덜 통제적일수록 인지적으로나 행동적으로 자기규제를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현대 사회에서 부족하기 쉽지만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발달과업인 자기규제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으므로, 자연스러운 발달과정으로 나타나는 연령차나 이미 고정된 속성인 성차는 논외로 하더라도,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어머니의 신념 중 사회화 전략이 자녀의 자기규제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결과는 본 연구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그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는 있을 것이다. 즉 어머니의 평소의 양육행동이 애정적이고 덜 통제적이며, 자녀가 자기통제를 잘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비난이나 위협과 같은 심리통제전략이나 무조건 외부에 의존하는 전략을 덜 사용하는 양육신념을 가지는 것이 유아의 자기규제력을 향상시키는데 미약하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아의 자기규제에 대한 어머니의 신념을 다른 연구들이 보다 많이 축적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자기규제를 교사로 하여금 평정하게 하였으므로, 실제 상황에서의 유아행동과는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연구결과를 해석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유아의 내적 변인뿐 아니라 외적 변인들이 자기규제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힘으로써 미래사회를 주도해나갈 차세대 유아들에게 꼭 필요한 발달과업

인 자기규제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제시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둔다.

■참고문헌

- 강기숙, 이경남(2001).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사려성이 유아의 자기통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2(4), 115-132.
- 곽혜경(1998). 유아의 기질, 유아가 제공한 통제체계, 어머니의 통제전략과 유아의 자기통제 행동과의 관계.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곽혜경, 조복희(1999). 유아의 기질, 어머니의 통제전략과 유아의 자기통제행동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0(1), 165-176.
- 교육부(1998). *유치원 교육과정 해설*. 교육부.
- 구순주, 최보가(1996). 아동의 사회적 행동에 대한 어머니 신념이 아동의 사회적 역량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4(1), 107-121.
- 김미혜, 옥경희, 천희영(2003). 어머니의 신념 및 양육행동이 유아의 공격 위축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1(4), 85-100.
- 김정원(2002). 영유아기 자녀의 자기규제 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요구양상. *아동학회지*, 23(4), 35-51.
- 김현신(1999). 아동의 사회적 행동과 부모 공동체의식과의 관계연구.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명자(1995). *발달심리학*. 학지사.
- 안미경(1996). 아동의 자기조절능력 및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행동간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남(2000). 아동의 자기통제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인간발달연구*, 7(1), 99-117.
- 이경남(2001). 아동의 자기통제와 관련변인간의 인과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9(2), 97-110.
- 이기숙(2000). *유아교육과정(개정2판)*. 교문사.
- 이수연(1984).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욕구충족 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혜, 최혜영, 김미혜(1990). 아동의 사회적 능률성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유치원용 및 국민학교 1, 2학년용 척도. 연세대학교 생활과학논집, 4, 175-189.
- 조성민, 이순형(1998). 상황의 특성에 따른 아동의 자기규제에 대한 판단. 아동학회지, 19(2), 147-157.
- 천희영(1994). 한국 아동의 기질 유형화와 어머니 양육태도.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혜영(1990). 사회적 능률성 척도의 타당화를 위한 일 연구: Harter 척도에 기초하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허수경, 이경님(196). 인지양식유형과 보상의 제시형태에 따른 아동의 만족지연능력 발달. 아동학회지, 17(2), 221-233.
- Bell, R. Q. (1979). Parent, child, and reciprocal influences. *American Psychologist*, 34, 821-826.
- Brody, G. H., Flor, D. L., & Gibson, N. M. (1999). Linking maternal efficacy beliefs developmental goals, parenting practices, and child competence in rural single-parent African American families. *Child Development*, 70(5), 1197-1208.
- Dix, T. H., & Grusec, J. (1983). Parental influence techniques: An attributional analysis. *Child Development*, 54, 645-652.
- Eisenberg, N., Cumberland, A., Spinard, T. L., Fabes, R. A., Shepard, S. A., Reiser, M., Murphy, B. C., Losoya, S. H., & Guthrie, I. K. (2001). The relations of regulations and emotionality to children's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problem behavior. *Child Development*, 72(4), 1112-1134.
- Eisenberg, N., Guthrie, I. K., Fabes, R. A., Shepard, S. A., Losoya, S. H., Murphy, B. C., Jones, S., Doulin, R., & Reiser, M. (2000). Prediction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s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from attentional and behavioral regulation and negative emotionality. *Child Development*, 71(5), 1367-1382.
- Flavell, J. H. (1985). *Cognitive development* (2nd ed.), 서봉연, 송명자 (역) (1990). 인지발달 -개정판. 중앙적성출판사.
- Flynn, T. M. (1984). Affective characteristics that predict preschool achievement in disadvantaged children.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16(3-4), 251-263.
- Geleman, D. (1995). Emotional intelligence. 황태호(역) (1996). 감성지능. 비전코리아.
- Harter, S. (1983). Developmental perspectives on self-system. In P. H. Mussen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4th ed., Vol. 4. 275-385). NY: John Wiley & Sons.
- Harwood, R. L., Schoelmerich, A., Schulze, P.A. & Gonzales, Z. (1999). Cultural differences in maternal beliefs and behaviors : a study of middle-class Anglo and Puerto Rican mother-infant pairs in four everyday situations. *Child Development*, 70(4), 1005-1016.
- Hasting, P. D., & Grusec, J. E. (1998). Parenting goals as organizers of responses to parent-child disagree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34, 465-479.
- Hasting, P. D. & Rubin, K. H. (1999). Predicting mothers' beliefs about preschool-aged children's social behavior : evidence for maternal attitudes moderating child effects. *Child Development*, 70(3), 722-741.
- Hatrer, S. (1998). The development of self-representation. In William Damon(5th Ed., vol 5. 467-552).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NY: John Wiley & Sons.
- Humphrey, L. L. (1982). Children's and teacher's perspectives on children's self-control: The development of two rating scal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0, 624-633.
- Kendall, P. C., & Wilcox, L. E. (1979). Self-control in children: Development of a rating scal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7(6), 1020-

- 1029.
- Kochanska, G., & Aksan, N. (1995). Mother-child mutually positive affect, the quality of child compliance to requests and prohibitions, and maternal controls as correlates of early internalization. *Child Development, 66*, 236-254.
- Kochanska, G., Coy, K. C., & Murray, K. T. (2001). The Development of self-regulation in the first four years of life. *Child Development, 72*(4), 1091-1111.
- Kochanska, G., Murray, K. T., & Coy, K. C. (1997). Inhibitory control as contributor to conscience in childhood: from toddler to early school age. *Child Development, 68*(2), 263-277.
- Kopp, C. B. (1982). The adolescents of self-regulation: A developmental perspective. *Developmental Psychology, 18*(2), 199-214.
- Lerner, R. M. (1986). Concepts and theories of human development (2nd ed.). N. Y.: Random House.
- Lewenstein, L. F. (1983). Developing self-control and self-esteem in disturbed children. *Social Psychology International, 4*, 229-236.
- Miller, S. A. (1988). Parents' belief about children's cognitive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59*(2), 259-285.
- Mischel, W., & Mischel, H. N. (1983).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knowledge of self-control strategies. *Child Development, 54*, 603-619.
- Pettit, G. S., Dodge, K. A., & Brown, M. (1988). Early family experience, social problem solving patterns, and children's social competence. *Child Development, 59*, 107-120.
- Rose, A. (1991). The relationship of self-controlling skilled to personal and social adjustment in elementary school-aged children. Biola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 Rubin, K. H., & Mills, R. S. L. (1990). Maternal beliefs about adaptive and maladaptive social behaviors in normal, aggressive, and withdrawn preschooler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8*, 419-435.
- Shaffer, D. R. (1993). *Developmental Psychology: Childhood and adolescence* (3rd ed.). CA: Brooks & Cole.
- Siegel, I. E. (1985). A conceptional analysis of beliefs. In I. E. Siegel(Ed.), *Parental belief system*(pp. 345-371). Hillsdale, NJ : Erlbaum.
- Smaroff, A. (1975). Transactional model in early relations. *Human Development, 18*, 65-79.
- Turiel, E. (1983). The development of social knowledge: Morality and conven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Vaughn, B. E., Kopp, C. B., & Krakow, J. B. (1984). The emergence and consolidation of self-control from eighteen to thirty months of age: Normative trends and individual differences. *Child Development, 55*, 990-1004.
- Wentzel, K. P., Feldman, S. S., & Weinberger, D. A. (1991). Parental child rearing and academic achievement in boys: The mediational role of social-emotional adjustment.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1*(3), 321-339.

(2004년 8월 31일 접수, 2005년 1월 3일 채택)